

대만의 팬 텍스타일 오사카 2010

- 고기능 · 고감도 · 에코 소재 등으로 일본 시장 개척 <1/2>

대만 섬유 산업 단체 연합회(纖維 産業 團體 聯合會)인 방척회(紡拓會)는 2010년 11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텍스타일 전시회인 팬 텍스타일 페어 오사카(PAN Textile Fair Osaka 2010)를 개최하였다. 오사카에서의 대만 텍스타일 페어(Textile Fair)는 이번으로 33번째가 된다.

이번 페어(展示會)에는, 텍스타일 메이커를 중심으로 하면서 2차 제품 메이커도 포함하여 28개사가 참가하였다. 대만이 자신있는 각종 하이테크 고기능 소재(各種 high-tech 高機能 素材), 고감도 패션 소재, 에코 소재를 출품함으로써, 일본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주최자인 방척회는 2010년 11월에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시(浙江省 杭州市)에 사무소를 새로 열었다. 앞으로는 시장 개척, 디자인 센터, 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일본 어패럴 사업의 중국에서의 생산에 대만 소재가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실부터 시작하여 차별화 직물을 다수 개발

역봉 기업(力鵬 企業 Li Peng Group)은 나일론 장섬유 메이커로서 폴리에스터 장섬유 기업인 역려 기업(力麗 企業, Lealea Group)과 함께 리볼론 그룹(LIBOLON Group)을 만들었다. 중합으로부터 방사, 가연, 직포, 염색까지 일관된 생산 체제를 갖추고,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칩(chip), 실, 생지를 판매하고 있다. 각종 기능성 가공사를 다수 개발하여, 홈 텍스타일, 패션, 스포츠, 산업 자재 등을 여러 분야에 걸쳐 개발하고 있다. 순환 사회(循環 社會)를 이루려는 페트(PET) 병을 회수하여, 재생 섬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칩(chip)과 실이 판매액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수지를 가공한 비섬유(非纖維) 분야도 넓히고 있다.

10%를 차지하는 생지를 살펴보면, 15년 전까지는 거의 의류 소재 용도만을 차지해 왔는데 지금은 50% 이상을 인테리어가 차지하고 있다.

팬 텍스타일에의 출품은 생지 중심이 되고 있다. 주력인 폴리에스터에서는 형광 표백이나 또는 직기에서 내린 상태의 직물, 즉 룸 스테이트(loom-state)로 일본 시장에 팔기를 원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고품질 생지를 일본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일론은 이 회사에서 가공한 것이 주력으로 되어 있다.

원동 신세기(遠東 新世紀 : Far Eastern New Century, 元來 遠東 紡織을 2009년 10월에 改称)는 연구 개발에서부터 중합, 방사, 방적, 직포, 염색, 어패럴까지 일관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종합 섬유 메이커(綜合 纖維 maker)이다.

이 회사는 대만에서 가장 큰 페트 병 회수 공장을 갖고 있으며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방적으로부터 생지, 어패럴까지 생산하고 있다. 팬 · 텍스타일에서는 재생 폴리에스터 방적사(再生 polyester 紡績絲)로 만든 생지로부터 어패럴까지 완전한 에코 상품을 출품하고 있다.

동시에 무라타 기계(村田 機械)의 보텍스(Vortex) 혁신 정방기를 사용하여 보텍스 과류정방사(Vortex 過流 精紡絲)를 출품하였다. 이 회사는 1997년부터 텐셀(Tencel)이나 모달(modal : 고강도 및 고습윤 탄성률을 부여하는 공정을 통하여 얻어진 셀룰로스 섬유)로 보텍스 정방사(Vortex 精紡絲)를 무라타 기계와 함께 개발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를 포함한 폴리에스터 섬유로 뽑은 보텍스 정방사도 출품되었다. 이 회사는 실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 고객이 이 정방사로 짠 생지로 중국에서 어패럴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

이화 실업(怡華 實業, I-HWA Industrial Co., Ltd)은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 : PTT) 섬유를 사용한 각종 형상 기억 직물(各種 形狀 記憶 織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아이론(no-iron), 방오성(防汚性), 발수’와 같은 이지 케어성(easy care性)에 소프트 터치(soft touch)와 진주같은 광택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PTT에 의한 형상 기억 직물은 경위(經 · 緯) 모두 PTT 섬유를 사용한 무지(無地 : 1가지 빛깔로만 되어 있는 직물)와 선염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번 보면 무지같은 경(經) 폴리에스터 × 위(緯) PTT 직물, 후염(後染, piece dyeing : 보통 직물이나 編布 상태의 염색)의 투톤 효과(two-tone 효과)를 낸 경흑 원착(經黑 原着) PTT × 위(緯) PTT 직물, PTT × 폴

리에스터 · 자카드(jacquard) 직물, 카티온(cation) 가염(可染) 폴리에스터 × PTT 자카드 직물, PTT × 레이온 직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베이비 터치(baby touch)를 갖고 있는 나일론 × 폴리에스터 교직물, 면 · 울(wool) 혼방 직물, 큐프라(Cupra)의 복합 직물, 100% 큐프라 선염 직물 등의 다양한 직물도 이 회사는 출품하였다.

텍스타일 컨버터(textile converter)인 종전(宗展)은 자사 공장은 없지만 다양한 소재를 폭넓게 상품화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에 현지 법인을, 베트남 호치민시와 미국 뉴욕에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제까지는 패션 소재를 출품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능 소재를 출품하였다. 이 회사는 ‘에코 평션(ecology function), 아웃 도어(out door), 뉴 나일론(new nylon), 스트레치(stretch)’를 특성으로 내세우며, 기능 소재를 모두 출품하였다. 이 회사 사장은 구미 중심인데, 기능성 소재로 일본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에코 평션(ecology function)에는 십자 이형 단면사(十字 異形 斷面絲)에 의한 흡한 속건 소재(吸汗 速乾 素材), 십자 이형 단면사에 흡열 발산 효과(吸熱 發散 效果)가 있는 광석분(鑛石粉)을 넣어준 청량 흡한 속건 소재(清涼 吸汗 速乾 素材),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 축열 보온 효과(蓄熱 保溫 效果)가 있는 나노 원적외선 소재(nano 遠赤外線 素材)를 포함하고 있다. 아웃 도어(out door)는 라미네이트와 코팅에 의한 각종 투습 방수 소재로 되어 있다.

뉴 나일론(new nylon)은 면 터치(綿 touch)의 촉감을 갖고 있는 캐주얼웨어 소재들이다. 블라우스, 셔츠 등의 주요 용도가 되고 있다.

스트레치는 물리적(mechanical) 방법과 스판덱스(spandex)를 사용한 원-웨이(one-way) 또는 투-웨이(two-way) 스트레치 소재와 그 위에 접착(bonding)에 의한 보온성 투습 방수 기능을 추가한 스트레치 소재를 포함한다.

건성 방식(鍵誠紡織)은 100% 폴리에스터 장섬유 직물(長纖維 : filament)로 출발한 생지 메이커이며 현재는 다양한 직물을 갖추고 있다. 직포 공장은 타이난현(大南縣)에 있으며, 워터 제트(water jet) 직기 약 160대, 래피어 직기(rapier 織機) 45대를 가지고 있다. 린 스테이트 생지의 월산(月産) 능력은 250만 야드(yard)이며, 이 중 60%는 생지로, 40%는 가공필(加工匹)로 판매한다. 워터 제트(WJ) 직기에서는 플레인(plain)한 수트지를 생산하고,

래피어 직기는 합섬과 셀룰로스 섬유와 천연 섬유 등 각종 복합 직물이나 팬시 직물을 생산한다. 항공 방취 등의 기능 소재나 리사이클 등의 에코도 포함한다. 원료는 대만제이며, 연구 개발이나 염색 가공도 대만에서 하고 있다.

주요 시장은 구미이며, 일본으로의 수출은 크지 않으나 상사 경유(商社 經由)로 실적을 축적해 왔다. 이번이 세 번째 제품이 되는 팬 텍스타일 페어를 통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사람은 무리한 말을 안 하고, 계약을 잘 지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소재를 사용한 제품도 페어에 전시하였다.

◎ 니트 생지들 다채로운 기능 가지고 있어

국지 경편 공업(國智 經編 工業)은 1991년에 설립된 경편 기업으로 스판덱스 교편의 트리카트(tricot)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오래 되었으며, 일본의 스판덱스나 나일론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종 시장은 구미중심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일본의 어패럴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 처음 참가한 팬 텍스타일 페어이지만, 값을 따지지 않고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회사는 편기 26대를 갖추고, 월산 18만 kg 정도이다. 29 ~ 36게이지의 편기가 있으며, 5장의 바디의 컴퓨터 자카드(computer jacquard) 편기도 돌리고 있다. 60 inch 폭에 1m 당 100 ~ 500 그램(gram)의 생지를 생산하고 있다 염색 프린트 공장도 가지고 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리사이클사(recycle絲), 흡수 속건사나 죽탄사(竹炭絲) 등의 기능사도 사용하고 있다. 생지나 무늬의 설계도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사오싱(紹興)에도 22대의 트리카트 편기, 염색 공장을 1995년부터 갖고 있다. 사오싱 공장에서는 베이직한 트리카트의 생산으로 특화하여, 대만하고는 서로 다르게 생산하고 있다.

처음으로 출품한 헝가 실업(軒嘉實業)은 각종 기능 소재를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자기 회사 및 협력 공장에서 환편 생지를 생산하고 있다. MIT(made in Taiwan)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되어 있다. 자기 회사(50%)와 제휴 기업 20%를 합쳐서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구미로의 수출이 중심이다. 일부는 제품으로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는 규모가 큰 통신 판매의 카탈로그에 자외선 컷(UV cut)의 파카(parka)가 게재되었다.

도요보의 아크릴레이트(acrylate) 섬유를 사용한 항균 소취 소재가 기능 소재의 중심이 되고 있다. 텐셀(Tencel) 등과 짜 맞춘 환편 생지로, 부인 이너용으로 상품화하고 있다. 일부는 제품으로 자기 회사가 대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다.

그 외로는 UV 컷과 적외선 컷(赤外線 : infrared rays cut)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능 소재를 대만 공업 연구원과 제휴하여 개발하고 있다. 섬유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IR 반사율(infrared rays 反射率)은 60% 이상이다. 또한 특수한 편성 구조에 의한 흡한 속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60초의 순간적인 속건과 땀이 역류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경 침직창(和慶 針織廠)은 1973년에 설립된 후로 일관하여 니트 생지 비즈니스를 해 왔다. 자기 회사에서 기획을 하고 대만의 니터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있었다. 부인용 니트 생지로 추동절용의 두꺼운 천을 생산하는 것에 장기(長技)를 가지고 있다.

원료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acryl), 스팅덱스(spandex), 울(wool) 등이며, 모두 대 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비즈니스는 상품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팔로우(after follow)에 특히 힘을 쓰고 있다.

2년 만에 두 번째 출품이 되는 이번에 아크릴, 울을 사용한 상품을 주체(主體)로 주요 아이템으로 200점의 상품을 전시하였다. 대만에서는 많지 않은 두꺼운 니트지 메이커로서의 특성과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능성을 갖는 간호사용 제복(nurse用 製服) 생지를 제안하였다.♣